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다양하고 특색있는 음악공연이 잇달아 마련되고 있다. 사진은 수원포교당 소년소녀합창단과 원성스님의 '그림으로 웃다' 동승의 노래-풍경'의 연습현장.

- 창작음악극 '진감' ● 도안사 '안숙선 판소리 불타전'
- 원성스님음악회 '풍경' ● 봉선사 '찬불가 발표회'

선을타고 오는 초파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음악행사가 잇달아 열려, 색다른 부처님 오신날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합창제 중심에서 탈피해 창작음악극이 선보이는가 하면,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이색적인 무대도 마련되는 등 공연의 내용도 한층 다양해졌다.

가장 눈길을 끄는 음악회는 진감극사의 일대기를 소재로 한 창작음악극 '진감'이다.

신라 말의 고승으로 불교음악인 범패를 중국으로부터 도입했고, 차나무를 들여와 재배하는 등 불교문화의 외연을 확장한 진감국사(眞鑑國師 774~850)의 행장을 그린 음악극 '진감'은, 합창과 관현악이 추가되는 교향곡 스타일에서 벗어나 음악과 연극, 무용이 함께하는 총체적인 무대로 꾸며진다.

이번 공연의 대본은 윤창광씨(극작가)가 썼고, 목정배교수(동국대)는 진감선사를 기리는 시를 지었다. 또 작곡과 지휘는 박범훈교수(전 국립극장관현악단장), 총감독은 김명곤 국립극장장이 맡아 작품의 완성도면에서도 교계 안팎의 기대를 모으기에 충분하다.

특히 진감국사는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5월의 문화인물이기도 해 불자

뿐 아니라 일반인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음악극 진감은 국립극장 50주년 기념 및 국립극관현악단 제19회 정기공연으로 30일과 5월 1일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선보인다. (02-739-1830)

수원포교당 소년소녀합창단과 원성스님이 준비중인 음악회 '그림으로 웃다 한 동승의 노래-풍경'은 어린이부터는 물론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회이다.

5월 1일~3일 서울 종로 연경홀에서 열리는 이 음악회는 서점가에 베스트셀러로 떠오른 원성스님의 (풍경)에 담긴 시에 유익상, 이종만, 선희, 정유탁씨 등 젊은 작곡가들이 곡을 붙였다.

특히 이 공연은 수원포교당 소년소녀합창단의 맑은 노래와 원성스님의 동승그림이 만나는 독특한 형식으로, 정제화된 음악회 형식을 벗어나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스님의 시낭송과 노래, 질문과 대답 등 관객이 직접 공연에 참가하는 실용적인 무대로 꾸며질 예정이다. (02-582-4131)

안성 도안사도 5월 11일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는 '안숙선의 판소리 불타전'을 특별 공연한다. 명창 안숙선씨(증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

아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가 부처님의 일대기를 판소리로 완창한다. 부처님의 생애를 '강생', '고뇌와 출가', '고행과 향마성도', '전법론', '대열반' 등 다섯 대목으로 나누어 부른다. (0334-676-8700)

봉선사는 부처님오신날 기념연주회를 26일 서울 국립극장에서 연다. 이번 연주회는 '봉선사합창단 창단 17주년 기념 연주회 및 창작찬불가 발표회'로 꾸며진다. (0346-527-1951)

조계사 청년회 보리수합창단의 '봉축창작음악연주회'는 5월 6일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02-720-1390). 봉은사도 5월 10일 봉은사문화재단공연 및 미디어불오페라다 공연을 펼친다. (02-545-1448)

이밖에 서울불교청년회의 연꽃노래잔치가 4월 30일 동국대 강강당에서 열리고, 광주·전남불교위원회가 영호남을 위한 열린음악회를 4월 말경 준비중이며, 부산광역시 불교위원회는 5월 2일 찬불가곡과 합창의 밤을 통해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 계획이다.

이은자 기자
(ejele@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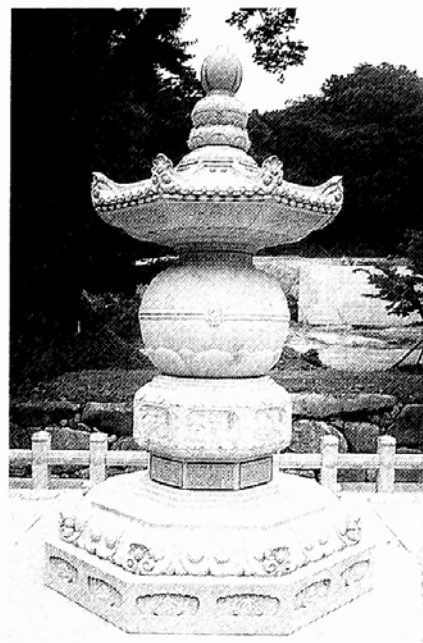
자운스님 부도·탑비 전통방식 재현 '주목'

8년간 원력...해인사에 조성

열반한 스님의 부도와 탑을 조성하는 데 있어 조각가나 석재상에 의뢰하는 것이 일반화된 요즘, 전통방식을 고집하며 상좌 스님들이 직접 제작의 전과정에 참여해 스님의 가르침을 기리며 부도와 탑비를 완성해 주목을 끌고 있다.

근세 고승의 한 분으로 한국불교의 율종 진좌에 매진해온 전계대화상 자운대율사의 부도와 탑. 영정과 영각이 7일 해인사에 조성됐다. 자운문도회가 92년부터 8년간의 준비작업을 거쳐 완성한 자운스님의 부도와 탑은 스님의 상좌인 자관스님의 원력으로 이뤄졌다. 자관스님(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은 통일신라와 고려 초기의 여러 부도모양을 토대로 스님의 탑비를 구상하고, 자운스님의 행장과 인품에 맞도록 전통방식에 입각해 각종 조형물을 만들고 문양을 새겼다. 자운스님의 부도와 탑은 철저한 고증을 통해 전통방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의의가 크다. 또한 예술적으로도 뛰어나 후손에 남길 문

화재로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탑의 전체 흐름은 양련(仰蓮)과 복련(覆蓮)을 층층이 올려, 구름연대에 앉은 탑주 자운 율사의 자비롭고 단엄한 좌상을 형상화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상대석의 8면에 인도의 우팔리존자, 중국의 도선, 백제의 결익, 신라의 자장, 통일신라의 진표, 조선의 금당과 대은 자운 율사 등 계승정신을 이어온 율종의 대표적 율사들을 특징적으로 형상화했다. 부도와 탑은 해인사 일주문에서 70여m 떨어진 자리에 조성됐으며, 성철스님의 사리탑과 마주하고 있어 두 탑의 대조적인 양식을 비교할 수 있다. 자운스님의 영정 또한 화상안료를 쓰지 않고 석채(石彩)에 스님의 율가부부를 섞어 삼배의 뒷면에 채색하는 전통방식으로 제작해 스님의 기품이 은은하게 배어나게 했다. 영정을 모신 영각은 전면 3칸, 측면 2칸으로 팔각지붕에 다포식 건물로 홍제에 세워졌다. 자운문도회는 전통방식으로 제작된 전



자운대율사원명사리탑(慈雲大律師圓明舍利塔).

과정을 <율종진좌사업일차보고서 자운대율사>(가산불교문화연구원 출판부)라는 책으로 엮어냈다. 율사 자운스님의 열반 직후부터 대비, 탑비와 영정, 영각 조성의 모든 과정을 확보로 담아 자료적 가치를 높였다. 이은자 기자

문화부 2002월드컵 기념 뮤지컬 '팔만대장경' 제작

내년 가을 시범공연

극단 현대극장의 뮤지컬 팔만대장경 해외수출에 이어, 팔만대장경을 모티브로 한 또 한편의 뮤지컬이 선보인다.

문화관광부가 2002년 월드컵 기념사업으로 준비중인 대작 뮤지컬 '팔만대장경'이 바로 그것이다.

팔만대장경은 서울예술단이 제작을 맡았으며, 대본은 소설가 이인화씨(이화여대 교수)가 쓴다. 그외 작곡, 안무, 연출, 주요 출연진은 현재 협의 중이다. 문화관광부는 내년 가을 시범공연을 하고, 월드컵 개막에 즈음하여 야외 역사 유적지에서 작품을 선보인다는 계획.

대본을 맡은 소설가 이 씨는 "그동안

팔만대장경은 고려인의 호국적 구원으로서만 이해되어왔으나 실제 당시 교풍이 몰락하고 선종계열의 종파가 생겨나던 권력투쟁의 한 과정이었다"면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팔만대장경 제작과정에 얽힌 이야기를 추리소설형식으로 극화하고, 탑인지 속에서 서방정토를 꿈꾸는 인간의 바람을 보여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인도에서 얻은 영감을 그림으로 표현한 서순순 교수.

삶과 죽음의 그림이야기

서순순 '인도연작展'

20일부터 한서갤러리

삶과 죽음의 경지를 뛰어넘어, 끝없는 집념과 정열로 씩씩한 창작열을 불태워 온 서양화가 서순순 교수(한서대학교 예술학부)가 20일부터 서울 인사동 한서갤러리에서 '인도 연작展'을 갖는다.

이번 전시는 지난 94년 서울 갤러리에서 열었던 전시회의 연장선으로 서 교수가 6년만에 다시 그리는 인도 연작전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은 작가가 7년간 인도에서 생활하며 캔버스강 앞에서 느낀 삶과 죽음, 내세에 대한 지향점을 스케치한 것들이다. 서교수는 '전생의 이야기' '환생 너는 어디

에' 등 화폭마다 인도의 인상과 풍물을 화려한 색채와 나이프를 이용한 독특한 기법으로 생동감 있게 표출했다. 특히 인도인들이 신앙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검은 소의 몸부림에서 자신의 힘들었던 삶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정신적인 '자화상'으로 그려내고 있다.

"캔버스강 곳곳에서 만나는 풍경 속에서 삶과 죽음이 함께 존재한다는 큰 가르침을 깨달았다"는 서 교수는 "인도에서 얻은 영감을 앞으로도 다양한 그림으로 표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연작전은 서울 전시에서 이어 29일~5월 5일 서산시 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린다. (02-737-8275)

해성스님

수화 찬불가집

창각장애인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연화복지원 원장 해성 스님이 수화 찬불가 CD '년 혼자가 아니'를 발표했다. 이 CD에는 '사람 사는 집' '인연따라 바람따라' 등 대중적이고 흥겨운 리듬의 창작찬불가 8곡과 경음악 2곡이 수록됐다. CD발표와 더불어 스님은 30일 오후 3시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수화 찬불가 발표회'를 갖는다. 이날 발표회는 동국대 손짓사랑회, 평림사 창각장애인 불자들이 참가해 창각장애인과 함께하는 한마당을 펼칠 예정이다.

이은자 기자

티벳 '사자(死者)의 서(書)' 오디오 북 특별 할인 판매

- ▶ CD(3장): 정가 50,000원 → 30,000원
- ▶ TAPE(1시간 30분 테이프 2개): 정가 28,000원 → 18,000원



바르도

이 오디오 북은, '티벳 사자의 서'를 쉽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배경 음악과 함께 이해하기 쉬운 현대적인 언어로 녹음되어 있다.

단순히 듣는, 이 명상법은 죽음의 과정과 죽음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갖가지 현상들을 미리 들려 줌으로써, 죽음의 상태에서 깨달음에 이르도록 도와 주며, 올바른 자공을 선택하여 환생하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다.

요소 삶과 죽음의 과정을 위한 학교'의 비트만(Veetman)에 의해 만들어졌고, 전 세계 6개 국어로 번역 출간되어 있다.

배경음악: 친미야(Chinmaya) / 번역: 최항식 / 목소리: 장두석

바르도에 대한 오소와경의 태일과 함께 들으시면 더욱 좋습니다(90분, 5,000원)
오소는 이 테이프에서 바르도에 대한 설명과 죽음의 순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바르도 상태에 대해 알고 있다면 죽음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죽음은 꿈의 끝이다." 오소

행사기간: 2000년 5월 31일까지(주문 판매에 한합니다)
도서출판 흥금꽃: 전화 02711-42278 / 팩스 02711-4229

제2회 진각논문대상 공모

2nd Academic Award Of Jingak Order

대한불교진각종은 불교관련 연구 특히 밀교분야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시키고자 '진각논문대상'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나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 ▶ 주 제: 불교일반 (불교관련 제반분야 포함) 밀교일반 (밀교관련 제반분야 - 진각종 교학 포함)
- ▶ 응모자격: 제한없음
- ▶ 전형방법: 인적사항 1부 및 논문계획서 1부
- ▶ 전형일정: 접수마감 - 2000년 5월 6일(토) 당선작 발표 - 5월18일 당선논문발표회 - 10월 13일(금)
- ▶ 당선작 및 상금: 불교분야 2~3편, 밀교분야 2~3편, 상금 각 200만원
- ▶ 접수처: 136-132 서울시 성북구 월곡2동 22. 대한불교진각종 교육원 종합연구실 인터넷홈페이지: www.jingak.or.kr e-mail: jingak@chollian.net 전화 (02) 913-0133, 0134 / 전송 (02) 913-0135

* 본 논문대상 당선작에 한해 다른 논문 응모제에 당선되었거나 기타 연구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 당선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진각종